

## 첫 여자 의료선교사 박에스더

### Esther Kim Park: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and Medical Missionary

Sung-Deuk Oak

1894년 4월 평양에 첫 여자 전도인으로 파송되었다가 1894년 12월 한국인 첫 여자 유학생으로 도미하여 1900년 볼티모어여자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가 된 김점동(1876-1909, Esther Kim Park)은 한국인 첫 선교사로, 곧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회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1909년 5월 28일 결핵으로 사망할 때까지 수 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다. 첫 여의사보다는 첫 여선교사로 기억되어야 할 에스더의 생애를 살펴보자.

**이화학당에서 복음을 듣고 기도회를 열다** 점동은 1876년 서울 정동 부근에서 가난한 서민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그 부친은 1885년 내한한 아펜젤러 목사에게 고용되었는데,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에서 여학생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자 1886년에 딸을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시켰다. 명석한 점동은 한글 성경, 요리문답, 한문, 영어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고, 조금씩 복음을 이해하면서 거짓말과 흠치는 일을 멀리하고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1887년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점동은 홍수가 나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점동은 기숙사 방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다.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한 소녀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자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점동은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열자고 했고, 자신의 방에서 첫 모임을 한 후에 매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다. 이를 들은 한국인 여교사가 참석하면서 첫 여자 기도회가 이화학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였다.

**첫 여자 통역 겸 간호보조원에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다** 여성병원인 정동 보구여관(保救女館: 이화여대 병원 전신)의 첫 여의사였던 메타 하워드(Meta Howard)가 건강 악화로 사임하자 후임으로 1890년 10월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 의사가 뉴욕에서 파송되어 왔다. 도착 다음 날부터 환자를 돌보아줬던 셔우드는 간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통역과 보조원이 필요했고, 이때 가장 영어를 잘 하던 점동이 매일 몇 시간씩 병원에 가서 셔우드 의사를 돕게 되었다. 점동은 통역, 약 조제, 환자 간호는 좋아했으나, 피를 보는 수술 장면에는 몸을 사렸다. 그러나 조금씩 수술 장면에 익숙해지던 중 셔우드 의사의 언청이 수술을 통해 새 삶을 사는 여성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점동은 자신도 의사가 되어 그런 수술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여자가 의사가 된다니! 그러나 점동은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셔우드 의사는 의학훈련반을 개설하고 점동 등을 가르쳤다.

**세례를 받고 정결한 영혼을 소원하다** 1891년 1월 25일 주일 15세의 점동은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올링거(Franklin Ohlinger)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명 에스더(Esther)를 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소녀들은 이름이 제대로 없었기에 세례명을 받았다. 기쁨에 넘친 에스더는 이날 셔우드 의사에게 편지를 썼다. “소중한 친구에게, 당신은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인 소녀이지만, 나는 당신을 친인척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오빠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나는 예수의 자매요, 당신도 예수의 자매입니다. 오늘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나는 찬란한 빛으로 빛납니다.” 얼마 후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당신은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제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일흔 번에 일곱 번이나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국인 소녀요 당신은 미국인 숙녀입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당신은 제 마음을 잘 압니다. 제 마음은 좁고 좁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급하게 화를 냅니다. 제 마음은 금방 별장게 달아오르는 당신의 화로와 같습니다. 제 마음이 유리처럼 깨끗하고 세상처럼 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언제나 당신과 저를 도와주시고, 당신과 저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한국에 보내셨고 저를 이 집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도와줄 것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관심은 언제나 청결한 마음, 넓고 지혜롭고 헌신된 마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의 기초임을 선교사들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혼인하고 평양에 첫 여자 전도인으로 가다** 당시 소녀들은 대개 14 세가 되면 결혼을 했다. 에스더가 16 세가 되었을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첫째와 둘째 언니는 시집을 갔으므로 그 어머니는 아직 댕기머리로 있는 과년한 에스더가 걱정이었다. 친척들도 에스더만 보면 “다 큰 애가 시집도 안 가고 뭐하냐?”며 성화였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혼하면 공부할 수 없으므로 고민이었다. 셔우드라는 약혼자 윌리엄 홀 의사가 1891 년 12 월에 내한하자 1892 년 6 월에 결혼했다. 로제타 홀은 남편의 조수인 박유산(1868-1900)을 중매쟁이를 통해 소개했고, 1893 년 5 월 24 일 에스더의 혼인식이 열렸다. 한국인의 첫 기독교 결혼식이었다. 에스더는 8 살이 많은 남편에게 처음에는 실망했으나 성실한 모습에 1 년이 지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간호와 의료 수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

1892 년 평양 선교지부의 첫 선교사로 임명받은 홀 의사는 몇 차례 탐사 여행 후에 1894 년 4 월 가족과 함께 평양으로 이주했다. 동행하자 는 홀 부인에게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평양 문을 열어주시면 평양으로 가야지요. 저는 주님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드렸으니, 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저를 죽이더라도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제 생명을 드리겠어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름다운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에스더는 선교가 금지된 평양에 선교사 정신으로 갔다. 그러나 곧 박해 사건이 일어나 김창식 등이 투옥되었다. (4 월호 참조) 박유산도 구타를 당하고 감금되었으나 홀 의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사태 수습 후에 에스더는 홀 부인을 도와 평양에서 처음으로 여성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곧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두 서울로 철수했다. 홀 의사는 다시 평양으로 가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1894 년 11 월 발진티프스에 걸려 사망했다.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후회하지 마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요.”였다. 평양은 홀 부부, 김창식, 에스더의 선교 정신으로 개척되었다.

**미국으로 가다** 홀 부인은 남편을 양화진에 묻고 몇 년 간 미국에서 지내기로 결정하고 1894 년 12 월 출국했다. 에스더는 의학 공부를 위해 자신을 미국에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홀 부인은 선교회의 허락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에스더와 남편 박유산을 데리고 미국에 갔다. 에스더는 1895 년 리버티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홀 부인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박유산은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아내의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했다. 1895 년 9 월 에스더는 뉴욕시의 유아병원에 들어가 1 년 이상 그곳에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개인교수를 통해 라틴어, 물리학, 수학을 공부했다. 낯선 땅에서 힘든 유학 생활! 한국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든 홀 부인은 에스더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함께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에스더는 “제 혼자만 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제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가서 불쌍한 우리 자매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와줄 신실한 친구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의대에 입학된다면 의사 수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만 둔다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 남편인 무엇보다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최선을 다 한 후에 배울 수 없다면 그 때 포기하겠습니다.”

에스더는 1896 년 10 월 1 일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현 존스홉킨스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홀 부인은 기금을 보내어 1897 년 1 월 평양에 홀 기념병원을 세웠으며, 1897 년 11 월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보구여관에서 의료 사업을 하다가, 1898 년 5 월 평양으로 갔다. 박유산은 아내의 학업을 즐겁게 도왔다. 그러나 식당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폐결핵에 걸렸고, 에스더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1900 년 4 월 28 일 병사했다. 에스더는 32 세의 나이에 이국에서 나그네 삶을 마감한 사랑하는 남편을 볼티모어 로레인파크묘지에 묻고, 3 주 후에 졸업장을 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 의료 선교를 위해 홀 부인과 에스더는 남편을 잃었다.

**첫 여자의사요 첫 여자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하다** 1900 년 5 월 의대를 졸업하고 최초의 한국인 여의사가 된 에스더는 독신으로서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사회 의료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한국에 파송되었다. 에스더는 서울의 보구여관에서 일한 첫 10 개월간 3,000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에스더는 도와준 친구들의 기대와 서원대로 동포 자매들을 섬기는 의사가 된 것이 기뻐다. 이후 9 년간 진료실, 입원실, 왕진하는 집 어디에서나 탁월한 기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매년 5,000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그리고 여자성경학교 교사로 위생이나 교회사 등 필요한 모든 과목을 가르쳤다. 또한 평양부인병원(광혜여원)을 비롯해 평안남북도, 황해도의 산간벽지를 돌면서 조선의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1909 년 5 월 28 일은 에스더와 한국 여성사에 특별한 날이었다. 여성교육협회와 여성사업협회는 최초의 여자 대학 졸업자인 의사 박에스더와 문학사 하란사에게 표창장과 금메달을 주었다. 그러나 박에스더는 그때 과로로 폐결핵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1910 년 4 월 13 일, 안타깝게도 34 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홀 부인의 아들 셔우드 는 에스더와 수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결핵을 퇴치하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1928 년 해주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항결핵운동을 전개했다.

박에스더는 첫 여자의사로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2006 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그러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에스더는 첫 여자 전도인이자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로 1910 년 4 월 하늘의 전당에 헌정되어 면류관을 썼다.